

마음의 불 끄는 부채 만들기 '숙제'

산문박의 禪

합죽선 무형문화재 이기동 翁

"부채 보낸 뜻을 나도 잠깐 생각하니 가슴에 불은 불을 끄라고 보냈도다. 눈물도 못끄는 불을 부채라서 어이 끄리."

옛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우리들은 흔히 부채를 여름에 사용하는 도구로 받아나 식히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시인은 마음의 불은 불을 끄는 도구로 삼았을 것이다.

"담만 식히는 물건 아니야"

합죽선(合竹簾)을 오래 만들어온 이 부분 무형문화재 즉우(竹雨) 이기동 翁(66, 전주시 대성동)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부채란 그리 간단한 물건이 아니다.

"합죽선이란게 단순히 담을 식히는 물건이 아니야. 이 우주의 이치인 음양의 조화를 들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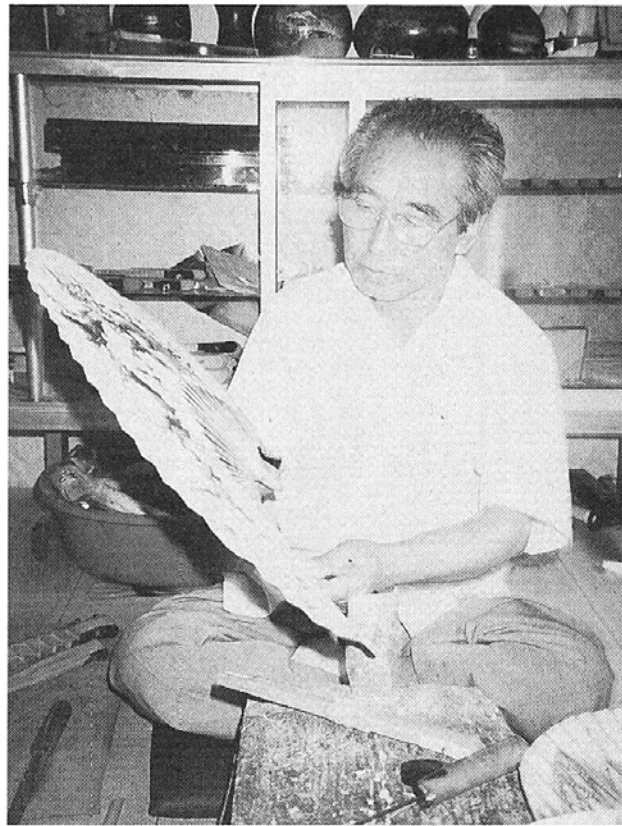
긴 대살(장시)과 짧은 대살(내시)을 붙여 골격을 만든다 해서 이름 붙여진

숙한 전통여인의 모습이다. 부채의 고리는 비녀이며 물소뿔로 된 손잡이부분은 머리카락을 상징하고 여인의 눈썹을 의미하는 선이 두가닥 들어가 있다. 그리고 도톰한 가슴과 가늘고 긴 다리를 감추고 있는 치마부분에 이르기까지...

부채의 양 테두리인 변죽의 마디마디에는 여인의 절개를 상징하는 국화문양이 들어간다. 부채 속살 하나하나에는 박쥐문양이 새겨지는데 이는 박쥐가 음을 상징하는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더위가 양을 의미하므로 이를 다스리기 위한 부채를 음을 상징하는 여인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어. 천지자연, 음양의 조화를 생생히 구석구석까지 실현시킨 선조들의 슬기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게지."

숯으로 연료를 쓰던 시절, 이음은 엄한 스승 밑에서 말로 다하기 어려운 전수과정을 겪었다. 19세에 입문하여 반백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만두기를 다섯차례, 결국은 천직으로 되돌아 오



삽화·이기선

업을 지으면 과보는 필연

선을 행하면 선의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악의 과보를 받는다.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 사람의 의도를 따르나니 마치 오곡의 종자를 심어 제각기 그 열매를 거두는 것 같네

법구경의 업에 대한 말씀이다.

업에는 선업(善業), 악업(惡業), 무기업(無記業) 등 세 종류가 있다. 선업은 좋은 과보를 초래하고, 악업은 나쁜 과보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무기업은 과보를 맺지 못하는, 윤리적으로도 중도적인 것이다.

"곧 업이 검으면 검은 과보가 있고, 업이 희면 흰 과보가 있듯이...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업이 있으면 과보가 없지 않다."

업을 윤리적으로 선하거나 악해야 하고, 또한 의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지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업보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고 타인에게 이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중부경전(中部經典)」에서는

"당신은 세존의 제자 중에서 신통력이 제일요 큰 위력이 있는데, 왜 그 신통력으로 그것을 피하지 않았소"라고 답한다. 이와 같이 업을 짓게 되면 틀림없이 그 과보(果報)를 받게 되지만 결과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44

업(業)

남에게 이전시킬 수 없어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과보를 받는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선업을 지은 자는 천상이나 인간계, 즉 선도에 태어난다. 그리고 악업을 지은 자는 주로 지옥 아귀 축생의 세계 즉 악도에 태어난다. 업은 품과 언어 마음 등 그것을 짓는 수단에 따라 3종으로 나뉜다. 이는 다시 세분되어 10종으로 나뉜다. 이것을 10업이라고 한다.

업이 성숙되는 기간은 다양하다. 장야람에서 붓다는 업이 이 결과는 나타내는 시기를 크게 다

생사윤회 반복하며 받게돼

결과적으로 이 무기업은 업 말한 의미에서 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에는 실질적으로 두 종류의 업, 즉 선업과 악업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자 심어서 열매 거두듯

업이 과보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 그 자체로써만은 안된다. 고의적이 아니고 계획되지 않은 행위, 또는 무의식적인 행위 역시 행위이긴 하지만 진정한 업을 이루지 않는다. 진정한 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업이란 무엇인가? 단적으로 업이란 의도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해서 몸으로나 언어로나 마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악업은 너의 것이다. 이것을 지은 것은 너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너의 친구들도 선생들과 친척들도 일가들도 고행자들도 바라문들도 신들도 아니다. 이 악업들은 너 혼자서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과보도 너 혼자서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업을 짓는 이상 그에 대한 과보는 필연적인 것이다. 일단 이루어지면 그 업의 성질에 따른 과보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앞에서 본 그 열매에 그 씨앗과 같은 것이다.

붓다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제일 뛰어났던 마우드갈라야는 마을에 탁발하러 갔다가 다른 종파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인 사리푸투라가 죽어가는 그에게

음의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즉 '업의 과보에는 3종이 있다. 업은 이 생에서 익고(順現業), 다음 생에서도 익으며(順生業), 여러 생에 걸쳐서 익는다(順後業)'는 것이다.

업의 과보에는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생에 걸쳐 받게 된다. 윤회이론에서 과보는 필수적으로 다른 생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윤회와 업만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업을 받아 윤회하는 생사의 반복은 그것이 선업을 받아 윤회하는 악업을 받아 윤회하는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생사윤회를 반복하여 되풀이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업을 받아 윤회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스승 심훈' 되새기며 1백여 공정 모두 손으로 "공력 들이지 않고 좋은 작품 바라면 도둑 심보"

합죽선은 태극선, 어두선, 죽절선 등 여러 종류의 부채 중에서도 그 정교함이나 종류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깊은 이치에 있어 으뜸으로 꼽힌다.

합죽선은 대나무를 4일내지 5일간 죽 삶아 부드럽게 만든 뒤 깎고 구부리고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합죽선 안에는 직선과 곡선, 강함과 부드러움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러한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합죽선은 그 탄력성과 유려한 자태가 생명이다. 합죽선을 볼 때마다 이음은 인간도 같다고 생각한다.

"의유내강의 맛이 있어야 돼. 사람이 란게 무조건 껫껫해서도 안되고 골실골실 살랑거리기만 해서도 안되지.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인간미가 있어야 되거든. 합죽선 같은 맛과 운치가 있는 인간이면 최고지."

합죽선은 12세기에 고려시대 한 고승이 기녀의 모습을 상징화해 만들었다고 전한다. 오묘한 합죽선은 영락없이 성

고 말했다.

그는 스승이 적어준 심훈을 꼬깃꼬깃 접어서 지금까지도 지갑에 넣고 다닌다. 색바랜 종이위에 적혀있는 "정직무사(正直無邪)" "일심무이(一心無二)"를 읽고 또 읽고 한 것이 그 몇번이던가.

"지극정성 공력들인 것 없이 작품 좋기만을 바라면 그게 바로 도둑놈 심보야. 나는 이 일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겁게 해. 그러나 한달이 걸리든 두달이 걸리든 내 마음이 합죽할 때까지 하는 거지."

1백여가지가 넘는 공정을 일일이 수공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얼굴을 한 부채는 하나도 없다. 가장 힘든 공정은 대를 하나하나 깎는 작업이다. 보통의 인내와 숙련으로는 업무를 내지 못한다. 1~2년 배우면 겨우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수십년 만든 사람도 감히 '만든다'는 말은 못하고 '배운다'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부채 만드는 공정이다.

이기동옹이 만든 합죽선은 일반인들

이 바서는 긴 살과 짧은 살이 붙은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의 살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교하기 그지없다. 오랜 수련의 결과이다.

조급증이 세상을 더 어렵게

일심무이의 정성으로 혼을 다해 만든 그의 부채를 펴노라면 인적이 끊어진 오지의 강물이 흐르고 나뭇배가 떠 다닌다. 그리고 그 강에선 문명의 이기가 뿜어내는 오염되고 습한 바람이 아니라 폐부를 씻어주는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나 온다. 요사이 어디에 가도 선종기 또는 에어콘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더위를 더욱 탄다. 이상기온으로 온도가 올라간 탓일까. 이 기동옹은 그만쯤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 것을 첫째 이유로 든다.

"요새 사람들의 조급하고 각박해진 마음 탓이야. 선종기 바람이나 에어콘 바람이 그게 어디 자연바람만 같은가. 한지와 대나무로 만든 부채는 살짝만

흔들어도 청풍이 넘실댄다. 대나무줄을 흔들고 온 시원한 바람에 찰로 눈이 감긴다. 인간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탐진치마저 스르르 잠재워질 것 같다. 그동안 만들었던 뛰어난 부채 작품들은 거의 다 선물해 버렸다.

"원하는 사람들마다 나누어 주다보니 남은게 별로 없어. 그렇다고 돈을 번 것은 아니고... 돈 벌려고 작정했다면 이 일을 못했을 거야."

그러나 주위의 권유로 이음은 앞으로 작품을 보관하여 전시관을 건립하고 나아가 전국순회전시회도 가질 계획을 살짝 비춘다.

"늘그막에 무슨 소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야. 예인이려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그 순간부터 이런 마음을 먹게 되지. 다음번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소망이야."

전주=이윤호 기자

지상의 낙원 HAWAII 하와이

하와이 대원사 창건 기념법회 방문단 모집

일시 1995. 10. 28 ~ 11.2
회비 1인당 77만원

일자	지역	일정
제1일	서울 하와이	김포공항 출발 하와이 도착 후 시내관광
제2일	하와이	대원사 창건 20주년 기념법회 동참(오전 10시 30분) 만찬회 및 축하공연(오후 5시~ 힐튼 하와이 빌리지 타파 불룸)
제3일	하와이	다이아몬드 분화구, 한국지도마을, 폴리네시아 문화센터, 섀넬비치, 사탕수수농장, 진주만, 오후 5시
제4일	하와이	바람산, 국립묘지, 주지사관저, 이올라니 궁전 등 관광 후 와이키키 해변에서 휴식
제5일	하와이	하와이 호놀룰루 출발
제6일	서울	서울 도착 후 해산

- ### 국제부
- 인도 성지 순례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인도, 인간 붓다의 고향, 수많은 생을 통해 모든 이치를 깨달은 곳.
→ 출발일: 11월 7일, 11월 21일, 12월 5일, 12월 19일
※ 회비: 192만원
 - 미얀마 성지 순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법, 위빠사나 단기수행.
→ 출발일: 1995년 12월 24일 ~ 12월 29일(15박 16일)
※ 회비: 140만원
 - 캄보디아 베트남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 사원 및 베트남 유적 순례.
→ 출발일: 10월 6일, 11월 6일, 11월 20일
※ 회비: 128만원
 - 인도네시아 보루부들, 발리, 싱가포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보루부들 사원 및 발리, 싱가포르 순례
→ 출발일: 10월 17일
※ 회비: 105만원

- ### 국내사찰순례
- 삼도사찰순례(당일)
※ 회비: 30,000원
→ 출발일: 10월 3일(화요일, 음 윤8월 초아호례)
참배지: 양산 통도사, 김천 직지사, 천안 각원사

- 출발일: 10월 8일(일요일, 음 윤8월 14일)
참배지: 김천 직지사, 천안 관덕사, 안성 칠장사
 - 출발일: 10월 10일(화요일, 음 윤8월 16일)
참배지: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화성 용주사
 - 출발일: 10월 21일(토요일, 음 윤8월 27일)
참배지: 변산 내소사, 공주 신원사, 평택 심복사.
 - 선산 죽장사 생전 예수재 회향(1박 2일)
※ 회비: 30,000원
→ 출발일: 9월 30일(토요일, 음 윤8월 6일)
 - 해인사 보살계 수계살림 동참(1박 2일)
※ 회비: 30,000원
→ 출발일: 10월 17일(화요일, 음 윤8월 23일)
 - 설악산 봉정암 야간산행(무박 2일)
※ 회비: 35,000원
→ 출발일: 10월 7일(토요일, 음 윤8월 13일)
- ※ 최신형 전세버스 다량 보유

(주)수미산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
국제부: (02)720-3241-7 / 국내부: 732-0181-3
국외여행업 등록 제358호